

1. 성주목사공파(星州牧使公派)

옥량 玉亮, 7세 판전의시사, 예의판서(禮儀判書, 이후에 예조판서)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의종, 명종대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충렬 왕대	敬輿 경여 典客令 전객령	嶽金 악금 左贊成 좌찬성	致龍지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공민왕 조선태조대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제감부정	珪玕 기간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조선세종대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 단종 1440~1450	寶孫보손	1 琦榮기영	1 大圓대원	1 一松일송	1 陰東음동	1 義發의발
											2 哲銅철동	1 億伯억백	1 次福차복	3 順永순영	3 德昌덕창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 세종대	(南海)懸鈴公派(남해)현령공파					
									3 得利득리 全州判官 전주판관 조선 세종대	(全州)判官公(전주)판관공파					
									4 得貞득정 進士 문종	進士公派진사공파					
							2 用休용휴 文司評 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3 用富용부 開國功臣 判尹 조선태조대	判尹公派판윤공파							

현옥량은 고려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1374년(고려 공민왕 23년), 문과에 급제하여 판전의시사와 예의판서(이후에 예조판서)를 역임했다고 족보에 기록되어있다.

판전의시사 (判典醫寺事)는 고려시대에 둔 전의시(典儀寺)의 으뜸 벼슬이며 품계는 정3품이다. 전의시(典儀寺)는 고려시대 제사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 시호(諡號) 제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였다.

판서공사적(判書公事蹟),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并序), 묘갈명병서(墓碣銘并序), 영모사 창건기(永慕祠創建記) 등에 7세 옥량공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옥량(玉亮)의 자(字)는 채상(采相), 호(號)는 사월(沙月)이다. 첨의공(僉議公, 6세 치릉)의 장자(長子)이다.

公의 천품(天稟)이 영특하며 용모가 단정하고 도량이 굉활(宏豁: **깨달음이 크다**) 하여 어려서부터 대인(大人)의 풍채가 있으므로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 조선 전기 세자좌빈객, 성균관대사성 등을 역임)께서 사랑하고 가상히 여기어 여서(女嬀: 사위)로 맞이하였다. 조말생(趙末生: 조선전기 병조판서, 대제학, 영종추원사 등을 역임)과 배환(裴桓), 배강(裴扛), 윤상(尹祥)과 같이 문정공 조용의 문하생이 되어 후학 교도(敎導)에 전심전력했다.

서기 1374년(고려공민왕(高麗恭愍王 23년)에 전시문과(殿試文科, **임금 앞에서 직접 보는 과거**)에 알성급제(謁聖及第 : **임금이 직접 합격증을 주는 제도**)에 합격하여, 공양왕(恭讓

王) 때에 이관(吏官, 이조의 관리)이 됐다.

공민왕(恭愍王)께서 여흥(驪興)으로 파천(播遷, 임금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하고 저위(宇位, 임금이 조회를 맡은 자리)가 여러 번 바뀌게 되어 국운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게 되자 공은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사제(私第)로 돌아와 선비 관(冠)을 쓰고 유생(儒生)들을 모아 영재를 기르는 데 총력을 경주했다.

강헌왕(康獻王, 조선조 태조대왕太祖大王)께서 공양왕(恭讓王)으로 부터 왕위를 양위(讓位)받은 다음 태조대왕(太祖大王)이 공을 특명으로 예의판서(禮儀判書)와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거듭 임명했으나 공은 모두 불응하고 탈연(脫然)히 향리(鄉里)로 돌아와 세상 일을 잊고 금서(琴書)와 시주(詩酒)로 그 회포(懷抱)를 달랬다.

퇴임 후 용궁(龍宮, 지금의 예천醴泉) 신당동(神堂洞) 강가에 살면서 맑은 모래와 밝은 달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그 동리(洞里)의 이름을 사월동(沙月洞)이라 하고 시를 읊으며 소일했다. 태조대왕이 보내 온 사신에게 시로 대답하기를,

월사동리문하유(月沙洞裡問何有) 월사동(月沙洞)에 무엇이 있는가 물으신다면 괴담화음령상운(愧答華陰嶺上雲) 화음산(華陰山) 영(嶺)마루에 구름 떠 있고 벽류처오품불산(碧柳萋梧風不散) 푸른 버들 오동잎이 바람에도 흩어지지 않으니 유능장득십분운(猶能裝得十分云) 그래도 충분히 즐겁다 말하오리다.	즉(卽) '월사동리(月沙洞里)안에 무엇이 있기에 그리 좋아하시느냐고 물으면 부끄러워하며 대답(對答)하기를 「화음산(華陰山) 위에는 백운(白雲)밖에 없노라」'고 했으며(이 뜻은 밝은 달과 밝은 백사장(白沙場)과 영상(嶺上)의 백운(白雲)을 사랑하면서 세상(世上)일을 잊고 고요히 살 것이며.) 즉(卽) '푸른 버들과 성한 오동(梧桐)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내 마음에 흡족(洽足)한 환경(環境)을 얻어 장식(粧飾)한 것과 같도다.' (이 뜻은 새 나라가 푸른 버드나무와 무성한 오동(梧桐)과 같아도 바람이 해치지 못하니 즉 다시 말해서 새 임금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다.
---	--

오히려 이처럼 고요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 내 마음에 족할 것이라 읊음으로써 아무런 번민(煩悶)이 없다는 뜻으로 노래했다.

公의 시의 뜻이 이처럼 깊으니 이것이 고려말(高麗末)의 실정이다. 국운이 기울어진 때를 당하면 누구든지 의협심(義俠心)을 발휘하여 이에 참여하는 것이 신하된 도리라 생각했다.

公께서 돌아가신지 2백년 후에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公의 덕행을 흠모하여 시를 지은 것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성리연원불이명(性理淵源不易明)

성리학(性理學)의 연원(淵源)을 알기가 어렵더니

양양칭도이공명(襄陽稱道二公名)

양양(襄陽)에서 두 분¹⁾ 이름(註)을 칭송(稱頌)하며 말하도다.

여하저술무전후(如何著述無傳後)

저술(著述)을 후세(後世)에 전하지 않은들 어떠하랴

양지고산독감정(仰止高山獨感情)

산(山)처럼 높이 우러러 정(情)을 느끼면 그만이지

양양(襄陽)은 지금의 예천(醴泉)이다. 이는 대개 옥량 공과 조용(趙鏞) 선생이 남긴 글이 많지 않은 것을 슬퍼하고 아까워하며 공과 조문정공(趙文貞公) 두 분을 도학군자(道學君子)라 칭송했다.

公은 또 고향의 덕이 높은 분들과 의논하여 예천향교(醴泉鄉校)를 세워 공자(孔子)·맹자(孟子)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의 글을 가르치며 손수 현판을 써서 달았다고 한다. 공이 그렇게 선현(先賢)을 흠모(欽慕)함과 윤상(倫常,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을 밝히려는 정성을 여기서 알 수 있다.

公의 관작(官爵)과 사적(事蹟)은 예천읍지(醴泉邑誌)에 기재되어 있고, 예천향교(醴泉鄉校)의 현판은 공께서 직접 쓰신 것이라 한다. 공의 묘소는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 우봉산 건좌(牛峰山乾坐)에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상순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

배위(配位, 배우자) 남양(南陽) 조씨(趙氏)는 문정공(文貞公) 조용(趙庸)의 딸인데 묘는 예천(醴泉) 신당동(神堂洞)이나 지금은 실전(失傳)되었다. 삼남일녀를 낳으니 맏이 용무(用武, 8세)는 벼슬은 부정(副正, 정3품 벼슬)을 하였는데 친명(親命)으로 벼슬길에 대한 마음을 끊고 시묘(侍墓)살이를 하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살면서 백성들에게 농상(農桑)을 가르치니 그 덕택에 한 고을이 편안했다. 다음 차남(次男)의 휘(諱)는 용휴(用休, 8세)인데, 문과(文科)로 사평(司評, 정6품)이다, 다음 용부(用富, 8세)는 판윤(判尹)으로 정2품이다. 개국공신(開國功臣)이 되어 태조대왕(太祖大王)이 손수 녹권(祿券)을 써 주었다. 딸은 진사(進士) 평산 신유(平山 申維)에게 시집갔다.

1999년에 24세 병용 등 후손들이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동막 우봉산 판서공 현옥량의 묘 서쪽에 ‘영모사’를 창건하고 7세 옥량 공과 함께 직계 선조인 시조 담윤공, 2세 덕

수 공, 3세 원열 공, 4세 경여 공, 5세 금 공, 6세 치룡 공 등 일곱 분을 모시고 향사를 매년 봉행해 오고 있다.

<판서공사적(判書公事蹟) 원문>

26. 判書公事蹟

公諱玉亮字采相號沙月僉議公長子也生而姿性英邁氣宇宏廓文詞遠博儀容愷悌爲趙松亭文貞公之婿切於爲己之學不樂宦達與尹別洞(祥)趙公(末生)襄公(桓)襄公(杠)同師事文貞公而以教導後學爲己任故文化蔚興齊一變魯名賢輩出麗恭愍王二十三年甲寅中殿試恭讓王朝爲史官 本朝太祖朝特除禮儀判書復爲判典儀寺事判典儀與禮曹判書同品而尤選人望之高者也退仕教授之暇有時携短僕乘小車逍遙自娛於月下沙上故名其所居洞曰沙月詩叢古韻載公詩云月沙洞裏問何有愧答華陰嶺上雲碧柳萋梧風不散猶能裝得十分云(註云答問使詩)蓋月沙卽沙月而倒文者取其平聲之諧廉也退翁詩性理淵源不易明襄陽(卽醴泉舊號也)稱道二公名如何著述無傳後仰止高山獨感情二公蓋指公及趙松亭也公之官爵及事蹟載於醴泉邑誌而醴泉鄉校題板卽公之手書云墓在龍宮內下面所洞(卽今醴泉郡知保面所華里)牛峯公(卽委峯山也雙委爲牛由於字音之相近而舊讀之訛傳已久故仍舊存之)負乾之原而碑面題曰通憲大夫判典儀寺事玄玉亮之墓 萬曆四十六年戊午五月日改立陰刻云外孫慶尙道巡察使尹暄題墓下有位土若干而每於十月上旬一祭之

27.高麗通憲大夫判典儀寺事沙月玄公神道碑銘并序

醴泉治南知保面所洞委峯下坐乾之原有崇四尺而龜龍煥然寔高麗判典儀寺事沙月玄公衣鳥之藏也禮當有神道顯銘而尚未遑是爲仁孫歷世之恨今年秋將伐石而豎于隧下石旣具後孫惠基舜基等請銘詩於相主主年今八十三癯弊不堪承膺而其請益勤乃按其遺事而叙之公諱玉亮字采相號沙月姓玄氏貫延州高麗明宗朝門下侍郎平章事延山君景憲公諱覃胤爲上祖生諱德秀兵部尙書星山府院君於公間五世高祖諱元烈太僕尹曾祖諱敬興典客令祖諱嶽左贊成考諱致龍都僉議寺事公天姿英邁儀貌豈弟字量宏豁自少有大人風采趙文貞公愛賞之以女妻之公因師事之講質理義與趙公末生襄公桓襄公杠別洞尹公爲同門契好交修互磨之行噪一世恭愍王甲寅中殿試文科歷史官至判典儀寺事皆精選也及恭愍遷驪興而宁位屢易邦運垂訖公遂不樂仕進角巾私第以育英才扶儒緒爲家計恭讓壬申我 康獻王受禪特命公爲禮儀判書俄拜判典儀寺事并不就脫然歸鄉里與世相忘日以琴書詩酒遣懷所居濱江愛明沙朗月之勝名其坊曰沙月嘗有詩曰月沙洞裡問何有愧答華陰嶺上雲碧柳萋梧風不散猶能粧得十分云其意誠遠矣蓋當麗氏之末爲其臣子者欲挺身奮義挽回已

傾之天固難回而身踵竹橋之血至若拚龍鱗附鳳翼翱翔於新春日月則實喬木世臣之所不屑也無寧退守林垆托意於沙月嶺雲以隱其節而泯其跡焉耳噫沙上皓月可賞而不可名言嶺上白雲可悅而不堪贈人則此卽是先生心事也其高風曠韻人孰能知之昔漢之末龐德公托遺安之計而耕於壠上晉之末陶元亮托田園將蕪而賦歸柴桑古君子亂代自靖之義誠曠世一轍也顧其世代綿邈文籍蕩佚公之居家行治立朝事爲與夫生卒年月無得以考焉是爲可恨然大節旣著小德略之亦無妨配貞敬夫人眞寶趙氏卽文貞公庸之女生三男用武副正用休文司評用富判尹女適進士申維副正男諱珪文吏郎司評男諱景祚郡守諱命祚通德諱光祚叅奉判尹男諱良績校理諱白同正吏郎男諱得元文牧使諱得亨南海縣令諱得利全州判官諱得貞進士郡守男諱璵牧使通德男諱佑進士校理男諱禎學生同正男諱存夫判官內外孫曾達官聞人多不能盡錄銘曰於赫公家麗代名閥世秉均衡爲國柱石名登太常勳錫采邑繫公之生苞羽藍玉英姿偉器宏文遠識文貞曰咨館我貳室雲錦玉珮周旋函席煌煌丹桂載榮喬木乍掌太史特陞宗伯天命靡常國社遠屋新龍御天俊乂雲集判尹典儀召命頻沓公矢曰嘻我罔臣僕冥冥遐舉于洛之側晴沙明月證我心曲節高跡泯候誰與識有蔭孔厚有遠其澤內外雲仍布濩八域金冠玉帶墨綬朱紱繩前踵後照耀邦國大德必祿其理不忒屹彼委峰月封四尺樂石峩峩螭螭龜伏我作銘詩詔世千億

歲赤猿重陽月初吉

永嘉後人 權相圭 謹撰

後孫 應周 篆

外裔完山後人 崔英憲 書



七世 判典儀寺事(禮儀判書公) 諱 玉亮의 墓
所在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동막



七世 判書公 諱 玉亮의 神道碑와 墓碑(墓前)
所在地: 上同 墓下 右

28.通憲大夫行禮儀判書判典儀寺事沙月玄公墓碣銘 并序
書曰君子得志澤加於民不得志修身見於世正謂判書玄公平生事行之大略也公生而稟性英邁氣宇宏廓文詞遼博儀容愷悌受業于趙文貞公切於爲己之學先生愛重而以女妻之高麗恭愍王二十三年甲寅中殿試文科歷舍人史官至判典儀寺事爲政清廉明敏朝廷咸推其德性也及朝鮮太祖受禪後公遂不樂仕宦退隱龍宮縣與尹祥·趙末生·裴桓·裴杠爲同門契好講論道義性理之說德學文行之教聲譽膾炙一世焉日以教導後進爲己任故文化蔚興齊一變魯碩學名賢多出其門下太祖特除禮儀判書而不就答問使詩曰月沙洞裡問何有愧答華陰嶺上雲碧柳萋梧風不散猶能裝得十分云而以詠其无悶之意也蓋我國高麗成宗時設置國子監而名雖謂創明儒學好學者甚小未得布教於世鄉黨莫知其仁義禮智之性天地萬物之理而徒以爲高遠難行之事自安暴棄矣惟公斯惻教之以五書五經使其時習沈潛性理學繼開其奧妙之說於是從學者甚衆變化其氣質是可謂齊一變魯之實也公之歿二百年後退溪李公慕公德行有詩曰性理淵源不易明襄陽稱道二公名如何著述無傳後仰止高山獨感情云蓋嗟惜公及趙松亭之遺文不多也公又與鄉中章甫議立醴泉鄉校祖述孔孟憲章弘文手書懸板云其慕賢明倫之誠於此可見矣惟我玄氏胄于侍郎平章事延山君諡景憲公諱覃胤生諱德秀慶尙道按廉使兵部尙書致仕享寧邊南嶽祠高祖諱元烈太僕尹曾祖諱敬興典客令贈右叅贊祖諱嶽左叅贊考諱致龍都僉議寺事贈領議政先系記事舉多遺逸姑依大譜而敘之公諱玉亮字采相號沙月延州人生于世家華胄早登科舉特陞宗

伯邦運乖訖謝絕世路遯居鄉里以育英厚俗爲樂事也墓醴泉知寶面所華里牛峰山乾坐原配南陽(今真寶云)趙氏文貞公庸之女墓在醴泉神堂洞而今失傳生三男一女長用武副正以親命絕意世道侍廬因居教民農桑一鄉賴安次用休司評次用富判尹以開國勳太祖手書賜祿券女適進士平山申維孫男珪正郎贈吏叅景祚郡守命祚通德郎光祚叅奉良績校理白同正曾孫得亨縣令錄原從勳得利文科判官錄原從勳咸吉道軍官殉忠於施愛亂填牧使佑進士厚澤虞侯禎學生存夫判官自後子姓繁延散在八域而其麗數萬矣後裔宗孫保功將軍忠順衛貴監察縣監太始府使孝福武科僉正參原從勳球縣監璉引儀德元郡守德郁武左部將德潤軍資正贈嘉善德良武備邊司贈兵叅德顥郡守贈戶叅德龍郡守德升文科正郎持平司藝文章筆法冠於當世稱希菴先生享天安六賢祠侃同知中樞府事志道侍廬有虎銜一大軍器寺判官尚璧洗馬世稱江門八學士若昊有文行崇氣節以規文學遼高爲關北名儒鳳漸文學高明以孝行累蒙獎翊鎮商文科司諫府使永基以孝友經學名翼東從仕朗廣搜宗族刊行辛丑四修譜翼洙有文行俊鎬叅奉積而能散盛稱德義錫虎國會議員內務國防長官治德大著名振一世糾合宗黨乃設大宗會以勗之錫朱陸軍少將安保會議常任委員餘不盡錄噫公之忠義德行固已樹立於當日如彼其卓然身後宜有崇褒之典而寥寥數百禩不得聞其偉蹟實爲之者之恨也後孫等將豎碣而來請文顧以薄識辭不獲而據世德錄序之如右銘曰天生哲賢用是國光維公進退道學賴彰早登文院史筆忠良履歷清顯澤加萬氓國運盛衰繫是天常高麗命盡朝鮮新皇退去龍宮師友同床道義性理學德文行講論啓牖膾炙一鄉文化蔚暢興起家邦瞻彼牛峰碩人之藏過者必式視我銘章

一九九二年陰十月十日

族後孫 國務總理 勝鍾 謹撰



永慕祠(1999年己卯 仲秋節 創建)
 始祖 溫景憲公 諱 翠龍 神位 四世 典憲令公 諱 敬輿 神位
 二世 星山府院君 諱 德秀 神位 五世 左贊成公 諱 盛 神位
 三世 太僕尹公 諱 元烈 神位 六世 都僉議寺事 諱 致龍 神位
 所在地：判書公墓下 左 〈每年 陰十月十日 奉祀〉



永慕齋(判書公 齋室) 墓下石
 所在地：경상북도 예천군 치포면 소화리

29.永慕祠創建記

慶尙北道醴泉郡知保面所華里東幕牛峰山判書公墓西園創建崇祠
楣曰永慕嘻哉其意義實巍大哉自六百餘年前以來吾醴泉玄門之延
州玄氏正統奉祀宗孫判書公胄裔以簪纓世族代代堅守儒風及崇祖
敬宗之士大夫家門而因於滄桑之餘判書公以下諸先之香火尙能世
世保守不替也嗚呼此延州玄門之矜伐判書公後裔之自負矣然乙酉
光復後國運否塞爲南北分斷嘗未曾有同族相殘動亂各門皆流離離
散之際吾延州玄門亦不可爲例外也卽判書公上代祖幽宅在北側地

域不可往來時享參拜不可哀痛莫大於此哉俗言曰衣食足然後知禮
儀哉然不曰人人有誠則事無不成乎去三年前延州玄氏奉祀宗孫縣
令公派醴泉玄門合謀宗中判書公上代先祖祠宇建立焉爲先之誠忠
兮至極戾天也於是受納誠金備購資材經之營之庶民攻之經始勿亟
不日成之於戲玄門之光榮兮醴泉之史蹟也今日之爲先兮後日之庭
訓也此宮奉安先祖始祖諱覃胤公高麗大將軍門下侍郎平章事封延
山君諡景憲二世諱德秀公兵部尙書星山府院君享寧邊南嶽祠宇三
世諱元烈公太僕尹四世諱敬輿公典客令五世諱嶽公左贊成六世諱
致龍公都僉議寺事贈領議政六位也於是乎建祠主管之一人而於推
進委員長與諸推進委員及納誠金之全宗人不惜勞苦之諸人元鶴洞
全宗人獻謝而合掌祝福焉

西紀一九九九年己卯仲秋節

儒道會 崔權興 謹撰

二十四世孫 炳龍 敬書

용무 用武, 8세,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

7세 옥랑의 장남, 벼슬이 사재감부정(司宰監副正)에 이르렀다고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사재감(司宰監)은 고려·조선시대 어물(魚物)·육류(肉類)·식염(食鹽)·소목(燒木)·거화(炬火:횃불)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부정(副正)은 종3품의 관직이다.

부정공 사적(副正公 事蹟)에 의하면

부친인 옥랑 公이 벼슬을 멀리하고 산골에 들어가서 험난한 세상사를 잊으려 하자 장자(長子)인 용무 公도 부친의 뜻을 좇았다. 부친 옥랑 公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시묘(侍墓:부모의 상을 당하여 무덤을 만든 후, 그 서쪽에 여막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머무는 상례 의식)한 뒤에 안현동(安峴洞) 서쪽 십리 밖 나부산(羅浮山)밑 지촌동(枝村洞)에서 살았다.

이 동리(洞里)는 낙동강(洛東江)의 북쪽이며 마현동(馬峴洞)의 동쪽으로 대체로 이곳은 심산유곡(深山幽谷)이라 사람이 살지 않으므로 통로조차 없어서 용무 公께서 손수 나무를 벌채하여 치도(治道)하고, 산에 풀을 깎아 밭을 개간하고 노복(奴僕:종살이를 하는 남자)과 더불어 농사에 힘쓰며, 公의 종적을 감추고 세상사를 단념하였다. 묘소는 사시던 터의 뒤 수백보 떨어진 임좌(壬坐) 언덕에 있다. 부정 公(副正 公)께서는 독자(獨子)를 두었는데 휘(諱)는 규(珪, 9세)이다. 문과(文科)로 이랑(吏郎; 이조정랑吏曹正郎, 정5품) 벼슬을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0. 副正公事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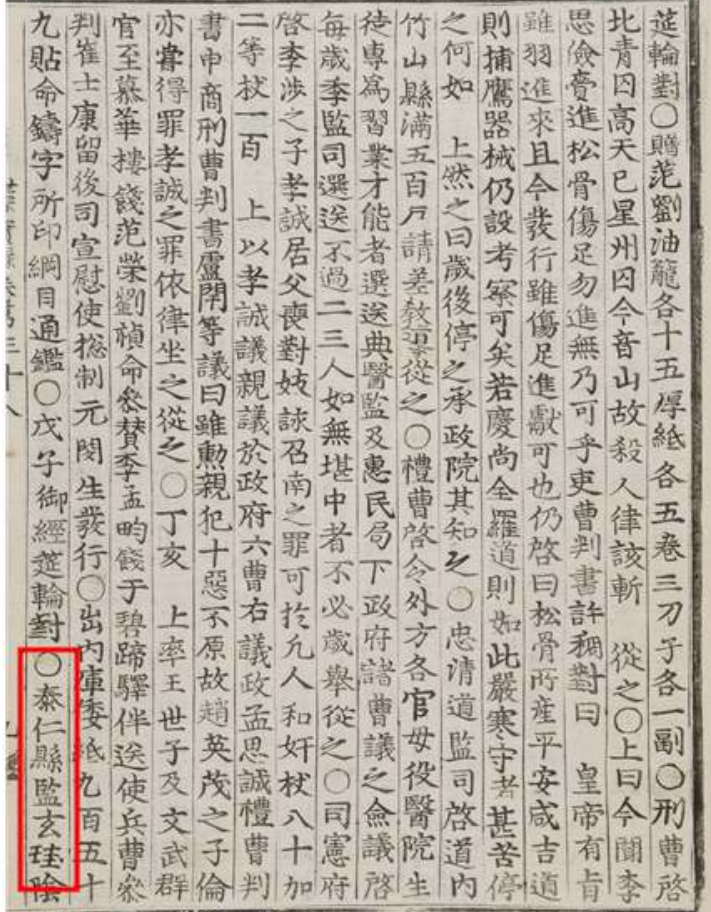
公諱用武判書公長子也判書公雖身爲宰相此是迫於君命而非其素志也常有深隱遯世之意而未遑故公遵承親意及遭巨創襄奉于所洞而三年廬墓之後因卜居于安峴之西十里地羅浮山下枝村村在洛江之北馬峴之東盖此地極其幽深人烟不通處也公乃伐木通道薙草拓田躬率奴僕務勸農桑輅晦踪跡而絕念世路故官至副正云墓在宗基後數百步許壬坐之原



八世 副正公 諱 用武의 墓
所在地：경상북도 예천군 지포면 매창리(라옥산)

규 珪, 9세, 태인 현감(泰仁縣監)

7세 현옥량의 손주이자, 8세 용무의 아들이다. 서기 1427년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丁未 조(條)에 보면 “태인 현감(泰仁 縣監) 현규(玄珪)와 음성 현감(陰城 縣監) 박전(朴旆) 등이 임지로 부임하기 전에 임금께 하직 인사를 드리는 기록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9년 정미(丁未, 1427년) 11월 4일 무자(戊子)	
태인 현감(泰仁縣監)<u>현규(玄珪)</u>와 음성 현감(陰城縣監)<u>박전(朴旆)</u>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았다 ○泰仁縣監玄珪、陰城縣監朴旆等辭,上引見。	

세종때 문과(文科:대과)에 급제하여, 판군자감사(判軍資監事:군수품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인 군자감의 벼슬)을 지내고 세종9년 (1427년)에 태인(泰仁) 현감으로 나갔다가, 홍문관 교리(弘文館 校理, 정5품)와 이조정랑(吏曹正郎: 이조의 정랑은 문신의 천거 등 특유의 권한이 부여된 관직으로 정5품)을 역임했다.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贈職 : 죽은 뒤에 품계와 벼슬을 추증하던 일)되었다고 족보에 기록하고 있다.



九世 贈參議 行郡守公 諱 珪와 配淑夫人 靑松朴氏의 墓(合葬)
所在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천리(파곡산)

득원 得元, 10세, 성주목사공파 중시조, 성주목사(星州牧使:정3품 외관직)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고려 의종, 명종대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고려명종대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고려 충 렬왕대	敬輿 경여 典客令 전객령	嶽金 억금 左贊成 좌찬성	致龍지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玉亮옥량 禮曹判書 예조판서 고려 공민왕 조선태조대1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규 古阜郡守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조선 세종대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 단종대	實孫보손	1 琦榮기영	1 大圓대원	1 一松일송	1 陰東음동	1 義發의발
											2 哲銅 철동	1 億伯억백	1 次福차복	3 順永순영	3 德昌덕창
									2 得亨득형 南海縣令남해현령 조선 세종	(南海)懸鈴公派(남해)현령공파					
									3 得利득리 全州判官 전주판관 조선 세종	(全州)判官公(전주)판관공파					
									4 得貞득정 進士 문종	進士公派진사공파					
							2 用休용휴 文司評 문사평	司評公派사평공파							
							3 用富용부 開國功臣 判尹 조선태조대	判尹公派판윤공파							
													4 順翊순익	1 曼東만동	

9세 현규의 장남. 성주목사공파 중시조. 호는 묵은(默隱)이다.

족보 기록에 의하면(족보 요약),

기절(氣節)이 탁월하였으며 효우(孝友) 또한 돈독하였는데, 1437년(세종世宗 19년) 文科(문과)에 급제하고, 1454년(단종端宗 3년)에 성주목사(星州牧使:정3품 외관직)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었으나, 1457년(정축丁丑)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영월로 유배되자 벼슬을 버리고, 아들 현보손(玄寶孫)과 같이 영천의 묵방동(默坊洞)으로 돌아와 은거하며, 종신토록 절의(節義: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른 도리를 끝내 지킨다는 뜻)를 지키다가 1458년(무인戊寅)에 돌아가시어 동리(洞里) 뒷산(山) 임좌원(壬坐原)에 장사(葬事)지냈다.

묵은선생현공묘갈명병서(默隱先生玄公墓碣銘并序)에 의하면,(묘갈명병서 요약)

공의 휘(諱)는 득원(得元)이요, 자(字)는 정숙(貞淑)이요, 호(號)는 묵은(默隱)이다. 모친은 정부인(貞夫人) 청송박씨(靑松朴氏)로 전객령(典客令) 임언(林彦)의 따님이시다. 선생이 지촌리(枝村里)에서 나시어 그 성품이 수진(粹眞)하고 덕이 두터우시어 일찌기 학행으로써 칭송이 높으시며, 서기 1437년(세종世宗 19년)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1454년(단종端宗 3년)에 성주목사(星州牧使)로 제수(除授)되시어 백성을 다스리시되, 효도하고 공경하며 우애하고 충성하며 공신력이 있도록 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으시니, 군민들이 다 흡족히 여기던 차에 1457년(세조 3년) 6월에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왕위(王位)를 내놓으셨다는 통보를 받고 통곡(痛哭)을 하며 집현전(集賢殿) 여러 관원에게 서신을 보내어 하시는 말씀이 “국사(國事)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나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선왕(先王:문종대왕文宗大王)의 고명(顧命:어린 임금이니 국사를 잘 봐 달라는 유언)을 감히 어찌 잊으리오. 저 푸른 하늘을 두고 죽음을 맹서할 따름이다” 하시고 그날로 벼슬을 사임하신 다음 영천(永川)의 묵방동(默坊洞)으로 돌아가셔서 숨어 일생 동안을 나오시지 않으셨다가, 마침내 단종대왕(端宗大王)께서 승하(昇遐)하신 후 일 년 만에 충성된 분(憤)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해 즉 1458년(세조 4년) 11월 17일에 돌아가시어 동리(洞里) 뒷산 임좌원(壬坐原: 묘소가 풍수적으로 안정된 평탄한 곳에 안장된 것)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배 정부인(配 貞夫人)은 경주김씨(慶州金氏) 참봉(參奉) 규석(奎錫)의 따님이신데 1407년에 나시어 1462년에 사망하시니 공의 묘소와 쌍분(雙墳)으로 모시었다. 아들 딸 각 한 분씩 두었는데 아들은 보손(寶孫)이요, 딸은 예조판서(禮曹判書) 유양춘(柳陽春)에게 출가(出嫁)하였다.

37.默隱先生玄公墓碣銘并序

於乎 莊光之際殉靖之賢無慮屢百而特載之於 二陵誌褒之於 列聖之 贈者殆未半焉 斯豈非爲世道者興歎也哉昔 成廟色變於僇齋之言廷臣股慄於鶴峯之奏蓋忌諱弘多不敢顯言者如此而終乃有幽微而未能闡顯者又過半矣曷爲而爲世道勸也今公墓道顯刻之文重可歎也謹按公諱得元字貞淑號默隱其先延州人延山君景憲公諱覃胤其上祖也至諱致龍贈領議政諱玉亮通憲諱用武奉善諱珪通訓於公爲四世也妣貞夫人青松朴氏典客令林彦女先生生于枝村里第質粹而德邵曾以學行聞 世宗丁巳登第 端宗甲戌除星州治民以孝悌忠信爲本一郡洽如丁丑六月聞 上王遜越之報痛哭寄書集賢諸公曰國事至此吾輩何歸先王顧命豈敢忘之彼蒼者天誓死而已卽日解紱歸隱于永川之默坊洞終身不出竟以忠憤歿於 端廟昇遐後一年戊寅十月十七日葬于村後壬坐之原配貞夫人慶州金氏叅奉奎錫之女生丁亥歿壬午二月一日墓雙封生一男一女男實孫女柳陽春禮判實孫生長男琦榮生大圓曾玄以下不盡錄於乎先生官微而行高節顯而跡隱蓋其志則非惡死而死不得其所其義則非好生而生自得其靖則其於生死必其有甚焉者存而只就其一個是苦心貞守自成爲一家之義理者也是故諸賢之撰述繼焉 莊鶴之佚編補焉真所謂時有拙伸事有顯晦非公之謂耶日公之昆孫尚明與尚慶賚公遺事及附編一局來請公篆刻之文顧不肖不堪當是役而竊念事契之深不敢終辭略據其遺事槩括如左系爲之銘銘曰

寄書示志凝川之義休官勇退越庵之槩聞 遜哭隱睡翁之憤不謀相符百世匹美非畏白刃視彼青史深目而誰屹彼斧堂星山轟轟二水泱泱庸寓篆刻昭示無疆

碧珍 李泰一 謹撰



十世 牧使公 號 默隱 諱 得元斗 配貞夫人 慶州金氏의 墓(雙封)
所在地: 경성북도 영천군 화북면 용호리(구북말동)



十一世 號雲煥 諱 寶孫
十二世 諱 琦榮
十三世 諱 大圓
祭壇碑
所在地: 墓所 陽下



牧使公 默隱先生 神道碑
所在地: 墓所 下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玄覃胤 현담윤 大將軍門下侍郎 平章事 문하시랑평장사 延山君연산군 諡 景憲公 경헌공	德秀 덕수 兵部尙書 병부상서 星山府院君 성산부원군	元烈 원렬 太僕尹 태복윤	敬興 경여 典客令 전객령	猷金 유금 左贊成 좌찬성	致龍지룡 都僉議寺事 도첨의사사	玉亮옥량 禮判書 예조판서	1 用武용무 司宰監副正 사재감부정	珪圭 고부군수 고부군수 吏曹參議 이조참의	1 得元득원 星州牧使성주목사 조선세종, 단종대 1440~1450	實孫보손	1 琦榮기영	1 大圓대원	1 一松일송	1 陰東음동	1 義發의발
											2 哲銅철동	1 億伯억백	1 次福차복	3 順永순영	3 德昌덕창
													4 順翊순익	1 曼東만동	
16세	17세	18세	19세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6세	27세	28세			
1 義發의발	1 善鳳선봉	1 世化세화	1 厚先후선	1 聖日성일	2 文默문묵	2 弼大필대	3 尙謹상근	1 燦基찬기	1 鎭奎진규 대종회수석부회장	1 鍾旭종욱 한일환경 대표	1 承涉승섭(승민) 현대용쇼빙조명감독				
					3 文得문득	1 弼業필업	1 尙詰상詰	3 奉基봉기	1 鎭德진덕 청송종친회장	1 鍾學중학	1 信姬신희				
			2 道先도선	2 聖光성광	1 文晩문안	3 弼夏필하	2 尙達상달	1 珞基낙기	1 鎭東진동 대종회사무처장	1 鍾熙중희					
3 德昌덕창	1 時宗시종	1 道元도원	1 斗默두묵	1 載旭재욱	2 月鎭월진	2 潤奉윤봉	1 廣相광상	2 光石광석	1 榮晝영로	2 準葉준엽	1 明鎭명진				
1. 曼東만동	3. 璉진	2. 開天개천	3. 時默시묵	1. 載八재팔	1. 承鎭승진	1. 潤千윤천	1. 張植장식	2. 炳烈병렬	1. 明垣명원	1. 錫春석춘					

진규 鎭奎, 25세, 1934년생 .(주)선일섬유회장, 대종회 수석부회장, 대종회 고문

서욱 曙旭, 26세, 자 종욱(鍾旭), 1961년생, 한일환경 대표, 대종회 이사

승섭 承涉, 27세, 자 승윤(承潤), 승민, 1988년생, 현대홈쇼핑방송 조명감독

진덕 鎭德, 25세, 자 명진(明鎭), 1937년생, 청송(靑松)종친회장,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진동 鎭東, 25세, 1945년생, 대종회 사무처장, 대종회 지도위원

승일 昇日, 24세, 자 승기(昇基), 1938년생, 대종회 지도위원

진호 鎭浩, 25세, 1942년생, 선일섬유 대표, 대종회 부회장

상완 祥完, 24세, 1941년생, 대종회 이사

경만 慶滿, 25세, 자 진만(鎭滿), 1947년생, 대종회 이사

종영 鍾永, 25세, 자 영식(永植), 1951년생, 대종회 이사

광성 光成, 25세, 1953년생, 대종회 이사

동준 東竣, 25세, 자 진준(鎭竣), 1968년생, 대종회 이사

용한 鎔漢, 25세, 1966년생, 대종회 이사

진걸 鎭杰, 25세, 1969년생, 대종회 이사

진관 鎭寬, 25세, 1958년생, 성일데미락 대표이사, 대종회 이사

진대 鎭大, 25세, 1956년생, 대종회 이사

진윤 鎭允, 25세, 1981년생, 대종회 이사

진철 鎭喆, 25세, 1956년생, 대종회 이사

광성 光成, 25세, 1953년생, 포항제철 근무, 대종회 이사

시학 時學, 26세, 1965년생, 청송장애인 후원회장, 대종회 이사

재복 在馥, 26세, 1971년생, 선일섬유 대표, 대종회 이사

재영 宰榮, 26세, 자 종영(鍾榮), 1967년생, 프로골프선수, 대종회 이사

종도 宗道, 26세, 1969년생, 대종회 이사

호일 皓日, 26세, 자 종호(鍾皓), 1964년생, 삼성전자 근무, 대종회 이사

용구 龍求, 27세, 자 성수(性洙), 1953년생, 외환은행 상무, 대종회 감사

철수 喆洙, 27세, 1957년생, 대종회 이사